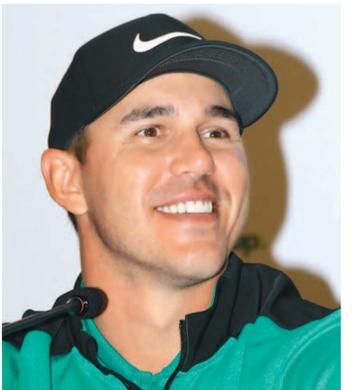


40대 우즈·30대 매길로이·20대 켈카 '왕의 전쟁'

통산 최다승 타이 앞둔 타이거 우즈
PGA 2연속 우승 노리는 매길로이
켈카, 대회 114년만에 3연패 도전
파워·정확성·빅게임 감자 '닭은꼴'



시즌 세 번째 메이저대회인 US오픈이 13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페블비치 링크스 코스에서 개막한다. 이번 대회는 40대 타이거 우즈, 30대 로리 매길로이, 20대 브룩스 켈카(왼쪽부터) 등 신규 골프 황제를 가리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신구(新舊) 황제들이 맞붙는다. 이른바 제왕들의 메이저 전쟁이다.

이번 시즌 세 번째 메이저대회인 US오픈이 13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페블비치 링크스 코스(파71·7075야드)에서 막을 올린다. 4대 메이저 중 가장 많은 총상금 1250만 달러(약 148억 원)와 우승 상금 216만 달러(약 25억5000만 원)가 걸려있는 이번 대회는 미국프로골프(PGA) 투어를 주름잡고 있는 세대별 황제들의 맞대결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주인공은 타이거 우즈(44·미국)와 로리 매길로이(30·북아일랜드), 브룩스 켈카(29·미국)다. 통산 최다승 타이틀 앞둔 우즈와 2연승을 노리는 매길로이, 대회 최초 3연패를 꿈꾸는 켈카가 가장 100주년을 맞는 페블비치에서 자웅을 겨룬다.

닭은 꼴 다른 이들의 경쟁은 이번 대회 최고의 관심사다. 40대 우즈와 30대 매길로이, 20대 켈카는 모두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장타력을 자랑한다. 우즈는 데뷔 24년차라는 세월이 무색하게 여전히 297야드를 넘는 평균 드라이버 비거리를 기록하고 있다. 매길로이는 180cm도 안 되는 신장으로 평균 드라이버 전체 2위(315야드)다. 켈카 역시 300야드를 거뜨히

	우즈	매길로이	켈카
나이	44세	30세	29세
신장·체중	185cm·84kg	178cm·73kg	183cm·84kg
데뷔연도	1996년	2007년	2012년
통산 우승	81승	16승	6승
메이저 우승	15회	4회	4회
US오픈 우승	3회	1회	2회
세계랭킹	5위	3위	1위
드라이버 비거리	297.8야드	315야드	308.6야드
그린 적중률	72.86%	70.65%	70.5%
평균타수	69.756타	69.181타	69.532타

※ 드라이버 비거리와 그린 적중률, 평균타수는 2019 시즌 기준

넘기는 슈퍼맨의 위용을 뽐내고 있다. 그린 적중률도 흠 잡을 곳이 없다. 우즈가 전체 1위인 72.86%, 매길로이가 70.65%, 켈카가 70.5%로 모두 순도 높은

그린 공략을 해내고 있다. 이들 셋의 평균 타수가 69타대로 유지되고 있는 원동력. 바로 골고루 갖춘 파워와 정확성이다.

메이저대회에 강하다는 공통점도 있다. 우즈는 통산 81승 중 15승을, 매길로이는 16승 중 4승을, 켈카는 6승 중 4승을 메이저 왕관으로 장식했다. 관심사는 자연스레 메이저 킹들의 US오픈 우승 여부로 향한다.

올해 US오픈 우승 경쟁에서 가장 앞서 있는 선수는 켈카다. 2017년과 2018년 잇따라 타이틀을 획득하면서 새로운 스타 탄생을 알렸다. 특히 통산 6승 중 4승을 메이저 대회에서 거두는 괴력으로 '메이저 사냥꾼'이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다. 켈카는 이제 대회 역사상 단 한 차례밖에 나오지 않

았던 3연패에 도전한다. 1903년부터 1905년까지 고(故) 윌리 앤더슨(스코틀랜드)이 처음이자 마지막 3연패를 이룬 뒤 무려 114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

2년 연속 디펜딩 챔피언에게 맞서는 이들은 '골프 황제' 우즈와 '차세대 황제' 매길로이다. 2002년과 2002년, 2008년 US오픈을 휩쓸었던 우즈는 이번 대회에서 PGA 투어 통산 최다승을 노린다. 고(故) 샘 스니드(미국)가 갖고 있는 82승과 타이틀을 이루겠다는 각오다.

매길로이도 빼놓을 수 없는 우승 후보 중 하나다. 2011년 US오픈 우승을 경험했던 매길로이는 직전 열린 RBC 캐나다 오픈에서 정상을 밟으면서 감각을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고평준 기자 shutout@donga.com

GSW, 베팅에서 2승 반격

토론토 널스 감독은 왜 작전타임 불렀나

우승 눈앞에서 상대에 역전 빌미 제공

농구는 선택의 연속인 종목이다. 특히 접전 상황에서 감독의 전략, 작전타임을 부르는 타이밍은 승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11일(한국시간) 캐나다 토론토의 스코티아뱅크 아레나에서 벌어진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와 토론토 랩터스의 2018~2019 미국프로농구(NBA) 파이널(7전4승제) 5차전은 바로 감독의 '선택'에서 승패가 가려졌다.

토론토는 에이스 카와이 레너드(26점·12리바운드·6어시스트)가 경기종료 5분 12초부터 3분28초까지 혼자 3점슛 2개 포함 10연속 득점을 올리면서 103-97까지 달아났다. 1995년 팀 창단 이래 첫 우승에 1승만을 남겨뒀던 상황, 토론토 팬들은 우승의 꿈에 부풀어있었다. 골든스테이트는 이 흐름을 좀처럼 끊지 못했다. 게다가 남은 작전타임도 한 번뿐이었다.

이 상황에서 오히려 토론토의 닉 널스 감독이 타임아웃을 불렀다. 골든스테이트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클레이 톨슨(26점·6리바운드)과 스테픈 커리(31점·8리바운드·7어시스트)의 3점슛이 번갈아 터지면서 경기 종료 1분22초를 남기고 103-103, 동점을 만들었다. 이어 경기 종료 56.6초전 톨슨의 역전 3점슛이 터졌다.

결국 골든스테이트는 106-105로 승리를 거두고 2승3패를 마크, 시리즈를 6차전으로 끌고 갔다. NBA파이널 6차전은 14일 골든스테이트의 홈인 오라클아레나에서 펼쳐진다.

정지욱 기자 stop@donga.com

편집 | 안도영 기자 do2@donga.com

역시 양궁 코리아! 강채영 세계신 2개 쫓다

세계선수권 리커브 예선·혼성 예선서
개인전 전원 32강...단체·혼성 16강행

대한민국 여자양궁대표팀 강채영(현대모비스)이 세계양궁선수권대회 예선에서 세계 신기록 2개를 수립했다.

강채영은 11일(한국시간) 네덜란드 스페르토헨보스에서 진행한 2019 현대 세계양궁 선수권 리커브 여자 예선에서 692점을 기록,

지난해 5월 터키 안탈리아 월드컵 2차 대회에서 자신이 세운 기존 세계기록(691점)을 1점 경신했다.

이어 강채영은 696점으로 남자부 예선 1위를 기록한 이우석(국군체육부대)과의 혼성팀 예선 합산에서도 1388점으로 세계기록을 세웠다. 종전 기록은 이우석-최미선(순천시청)이 지난날 중국 상하이 양궁월드컵 2차 대회에서 세운 1368점이다.

그 외의 태극궁사들의 분위기도 좋다. 최

미선이 676점으로 6위, 장혜진(LHD)이 7위(673점)로 예선을 통과했다. 여자부 단체전 합산점수도 1위(2041점)로 예선을 통과했다.

남자부는 이승윤(서울시청)과 김우진(청주시청)이 693점으로 동점을 이뤘지만 10점 개수에서 앞선 이승윤(49개)이 3위, 김우진(47개)이 4위로 예선을 통과했다. 남자부 단체전 예선에서도 1위(2082점)를 달성했다.

이로써 양궁대표팀은 개인전에서 전부 8위권에 진입해 32강에 직행했고, 단체/혼성 전 역시 4위권에 올라 별도의 24강전을 치르지 않고 16강에 직행했다.

남양현 기자 yoshike3@donga.com



강채영이 11일(한국시간) 네덜란드 스페르토헨보스에서 열린 세계양궁선수권대회 리커브 여자 개인전에서 2개의 세계신기록을 세운 뒤 과녁 앞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제공 | 대한양궁협회

sports2i

스포츠투어와 함께하는 스포츠기록실

경기 결과

팀	경기	승	패	무	승률	경기	타율	홈런	홈런	득점	실점	실점	도루	도루
S K	65	42	22	1	0.656	- 1패	0.254	3.58	0.576	288	256	59	54	41
두산	66	41	25	0	0.621	2패	0.273	3.27	0.657	332	244	44	47	37
L G	64	37	27	0	0.578	5.0승	0.260	3.11	0.633	267	247	37	41	42
N C	64	35	29	0	0.547	7.0승	0.288	4.05	0.588	315	289	65	31	47
K I A	67	36	31	0	0.537	7.5승	0.280	4.18	0.576	359	294	46	47	42
삼성	64	29	35	0	0.453	13.0승	0.265	4.17	0.548	297	299	54	52	51
한화	64	28	36	0	0.438	14.2승	0.248	4.47	0.567	280	301	42	57	44
K T	66	28	38	0	0.424	15.0승	0.272	4.87	0.613	287	348	46	43	57
K I A	65	25	39	1	0.391	17.0승	0.267	4.98	0.424	287	346	38	41	38
롯데	65	23	42	0	0.354	19.5승	0.261	5.66	0.441	304	392	40	32	56

Before & After 7-Game

팀	2일	4일	5일	6일	7일	8일	9일	11일	12일	13일	14일	15일	16일	18일
S K	(○)	(○)	(○)	(○)	(○)	(○)	(○)	(○)	(○)	(○)	(○)	(○)	(○)	(○)
두산	(○)	(○)	(○)	(○)	(○)	(○)	(○)	(○)	(○)	(○)	(○)	(○)	(○)	(○)
한화	(○)	(○)	(○)	(○)	(○)	(○)	(○)	(○)	(○)	(○)	(○)	(○)	(○)	(○)
키움	(○)	(○)	(○)	(○)	(○)	(○)	(○)	(○)	(○)	(○)	(○)	(○)	(○)	(○)
K I A	(○)	(○)	(○)	(○)	(○)	(○)	(○)	(○)	(○)	(○)	(○)	(○)	(○)	(○)
삼성	(○)	(○)	(○)	(○)	(○)	(○)	(○)	(○)	(○)	(○)	(○)	(○)	(○)	(○)
롯데	(○)	(○)	(○)	(○)	(○)	(○)	(○)	(○)	(○)	(○)	(○)	(○)	(○)	(○)
L G	(○)	(○)	(○)	(○)	(○)	(○)	(○)	(○)	(○)	(○)	(○)	(○)	(○)	(○)
K T	(○)	(○)	(○)	(○)	(○)	(○)	(○)	(○)	(○)	(○)	(○)	(○)	(○)	(○)
N C	(○)	(○)	(○)	(○)	(○)	(○)	(○)	(○)	(○)	(○)	(○)	(○)	(○)	(○)

타격

순위	선수	팀	타율	경기	타수	안타	홈런	득점	타점	도루	4사	삼진	실책	특점	OPS
1	양의지	N C	0.372	59	196	73	12	30	38	2	36	22	1	0.382	1.088
2	박민우	N C	0.360	47	189	68	0	37	12	6	17	6	0	0.324	0.822
3	최민석	두산	0.347	66	265	92	10	45	48	0	30	22	3	0.333	0.944
4	김백호	K T	0.335	65	254	85	8	47	34	6	36	48	2	0.299	0.908
5	김하성	키움	0.324	62	247	80	8	55	51	12	36	44	11	0.363	0.917
6	로하스	K T	0.324	64	238	77	11	27	44	3	27	56	4	0.259	0.908
7	안치홍	K I A	0.322	80	227	73	3	32	31	4	25	2	0.247	0.797	
8	김태환	한화	0.320	54	178	57	1	23	19	3	33	36	0	0.262	0.814
9	고종욱	S K	0.318	61	211	67	2	40	23	16	8	43	0	0.375	0.768
10	이정후	키움	0.314	65	274	86	5	41	29	7	23	25	1	0.283	0.820

※ 득점권 타율: 주자 2루, 3루, 1-2루, 1-3루, 2-3루, 만루시 타율 OPS: 홈루율 + 장타율

평균평자책점

순위	선수	팀	경기	타수	안타	실점	자책	승	패	세	세	안타	출런	삼진	4사	피타율	WHIP
1	황 S L G	1.62	14	94.2	27	17	6	4	0	78	1	62	21	0.227	0.99		
2	산체스 S K	1.76	13	81.2	19	16	9	2	0	67	0	73	18	0.223	1.03		
3	루친스키 N C	1.95	13	83.0	23	18	4	3	0	60	3	61	24	0.203	0.95		
4	앨 리 L G	2.14	14	88.1	32	21	6	6	0	72	4	71	27	0.223	1.05		
5	린드블럼 두산	2.15	14	92.0	23	22	9	1	0	75	6	84	18	0.218	0.98		
6	김광현 S K	2.66	14	84.2	27	25	7	1	0	88	6	88	18	0.267	1.24		
7	유 최관 두산	2.77	13	78.0	29	24	3	4	0	83	2	34	20	0.276	1.28		
8	알칸타라 K T	3.06	12	85.1	30	29	5	0	0	87	7	48	13	0.263	1.13		
9	박종훈 S K	3.23	13	69.2	28	25	3	3	0	77	6	67	28	0.286	1.44		
10	체드윙 한화	3.38	14	88.0	35	33	5	0	0	93	6	62	39	0.280	1.44		

※ 피타율: 안타+타수 WHIP(이닝당 출루 허용): (안타+볼넷)÷이닝

※ '프로야구 기록실'이 신문제작 시간관계로 일부 게재되지 못했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메이저리그

순위	동부지구	승	패	무	승률	중부지구	승	패	무	승률	서부지구	승	패
1	탬파베이	41	24	1	0.625	미네소타	43	21	1	0.672	휴스턴	45	22
2	뉴욕	40	24	2	0.625	클리블랜드	33	32	2	0.545	텍사스	35	30
3	보스턴	34	33	3	0.515	시카고W	31	34	3	0.476	오클랜드	33	34
4	토론토	23	42	4	0.353	디트로이트	24	38	4	0.385	LAA	32	35
5	볼티모어	20	45	5	0.303	캔자스시티	20	45	5	0.303	시애틀	28	41

내셔널리그

순위	동부지구	승	패	무	승률	중부지구	승	패	무	승률	서부지구	승	패
1	애들랜트	37	29	1	0.561	밀워키	38	28	1	0.577	LAD	45	22
2	필라델피아	37	29	2	0.561	시카							